



초록우산-전북교육청, 수학여행비 지원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이하 본부)가 취약계층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부담 완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전북교육청은 13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유정기 교육감 관내대행과 박미애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학여행 지원사업비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학여행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 지원 금액은 초등학교 20만 원, 중학교 25만 원, 고등학교 35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여행 경비가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 가정에는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져 왔다.

이에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3~4월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학생 104명에게 총 3168만 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학생들은 교육청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자부담 비용과 준비비 등을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박미애 본부장은 "수학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교육의 연장선"이라며 "가정 형편 때문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들의 행복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정기 교육감 관내대행은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펴준 초록우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복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소방 구급대원, 전국소방기술경연 출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분야에 전북 대표 구급대원들이 출전해 전국 최고 수준의 구급역량을 겨뤘다고 밝혔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기술을 겨루는 국내 최고 권위의 소방 경연대회로, 구급분야는 실제 응급현장을 반영한 고난도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전북소방 대표팀은 각 소방사에서 선발된 우수 구급대원들로 구성됐으며, 다수사상자와 중증응급환자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구급전술 분야와 심폐소생술·전문기도관리·외상처치 등 응급처치 숙련도를 평가하는 구급술기 분야에 참가했다.

특히 전북 대표팀은 대회 출전을 위해 수개월간 반복 숙달훈련과 실전형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왔으며, 팀워크와 정확한 응급처치 수행능력 향상에 집중해왔다. /이만호 기자



남원 주천면 지사시험, 어르신에 보행보조기 지원

남원시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부터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2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주천면이 추진 중인 1일 1가구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어 주로 집 안에서만 생활해 온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직접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일상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 어르신은 "걷는 것이 불편하여 마음 경로당에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보행보조기를 지원받아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다.

노환순 면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연대·협력으로 교육 발전 힘 보태겠다”

김용일 전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28대 회장 취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은 13일 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사회 및 제28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진과 이사회 관계자,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협의회 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행사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2026년도 협의회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의회 운영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러 진행되는 이·취임식에서는 제27대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용일 신임 회장의 취임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일 신임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의 활동과 향후 계획을 위원장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교육 현장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연대와 협력이 살아 있는 협의회를 만들어 전주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채선영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전주교육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무주덕유산CC, 2026 초여름 골프 패키지 출시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가 라운딩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2026 골프 패키지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 이번 패키지는 이용객의 스케줄과 선호도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36홀 패키지 △석식 18홀 패키지 △조식 18홀 패키지 총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36홀 패키지는 골프의 묘미를 온전히 느끼고 싶은 이들을 위한 구성으로, 이틀에 걸쳐 총 36홀의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객실에서의 1박과 함께 티롤호텔의 석식, 클럽하우스의 조식이 모두 포함된다.

보다 여유로운 일정을 선호하는 골퍼들을 위해 석식과 라운딩이 포함된 '18홀 패키지'도 마련됐다. '석식 18홀 패키지'는 첫날 18홀 라운딩 후 호텔 석식이 포함되며, '조식 18홀 패키지'는 아침 식사 후 불꽃 날 라운딩에 나서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객실도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패키지 이용객들은 가족호텔의 실비 및 골프 타임 객실 유희업의 고품격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는 티롤호텔의 객실 등 원하는 객실을 선택해 머물 수 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 관계자는 "신록이 우거지는 5월과 6월은 무주덕유산CC의 아름다움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라운딩과 편안한 휴식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발 950m 고지에 위치한 무주덕유산CC는 세계적인 골프 거장 아돌프 파머의 설계 철학이 담긴 곳으로, 총 18홀의 코스(인코스 파36, 아드 3.251/아웃코스 파36, 아드 3.472)로 구성되어 있다. 청정고원 골프장 지형의 골목을 그대로 살린 역동적인 코스 레이아웃이 특징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위기가구 발굴

남원시, 안부살림 우편서비스 '안심하이' 본격

남원시가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안부살림 우편서비스 '안심하이' 사업을 지난 5월 13일 첫 배송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안심하이'는 남원시가 올해로 3년 연속 선정되어 추진 중인 복지서비스로, 우체국 집배원의 높은 현장 접근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장년 1인 가구, 고립 청년, 조손 가구 등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소규모 생활품을 대면 전달하며 생활 실태와 위기 징후를 살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난 3월 남원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교육을 이수한 집배원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정서적 위험 요인 등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심하게 확인한다.

특히 배송 과정에서 위기 상황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읍면동 담당자에게 연계해 사례 관리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긴급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실제로 지난해 운봉읍에서는 담당 집배원이 집 안에 쓰러져 있던 홀몸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응급조치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 올해 남원시는 고립 위험도가 높은 200가구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월 2회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한 계획이다.

김현욱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남원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는 향후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과 고독사 위험 가구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응급조치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 올해 남원시는 고립 위험도가 높은 200가구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월 2회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한 계획이다.

김현욱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남원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는 향후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과 고독사 위험 가구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지역 기관·단체 등, 사랑나눔 잇따라

무주군 실천면 무주구원동 지역단체들이 지난 12일 무주군립요양병원에 성금 310만원을 기탁했다. 무주군립요양병원 다목적실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는 무주노인회구원동분회(회장 최태호), 구원동관공복구연합회(회장 박우열), 구원동 7개 리 이장단 무주스키렌탈협회(회장 박한규), 구원동농어촌활성화위원회(위원장 안춘모), 백련사신도회(회장 오용선)와 관청형 무주군립요양병원 이사장을 비롯한 권도훈 원장 등 병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무주읍에 거주하는 최학돈 전 무주군청 비서실장도 13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108만원을 기탁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5월은 가정의 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전해요

전북대병원-전북현대, 어린이병동서 환우·가족들 대상 특별한 응원 행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 이하 전북현대)와 함께 어린이병동에서 환우와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기 치료로 병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어린이 환우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결에서 간병과 돌봄을 이어가는 보호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어린이병동에는 전북현대의 인기 마스코트 '나이트'와 '썬치'가 직접 방문해 아이들과 만남을 가졌다. 마스코트들은 병실 곳곳을 돌며 환우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짧지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북현대는 아이들의 일상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구단 마스코트 캐릭터가 담긴 '썬치 필로우'를 전달했다. 아울러 오랜 시간 병간호로 지친 보호자들에게는 케어이전과 함께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병원은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돕는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양종철 병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환우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준 전북현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해 아이들이 보다 밝고 희망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정읍시, 약사회와 방문 복약 지도 협력

정읍시는 지난 12일 정읍시 약사회(회장 강영복)와 손잡고 전문 약사가 통합 돌봄 대상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다제약물 방문 복약 지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만성질환 등으로 10종 이상의 약물을 상시 복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 약물 오남용과 과다 복용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을 막고자 마련됐다. 시는 통합 돌봄 대상을 중심으로 사업비 900만원을 투입해 지역 특화 신규 사업으로 이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약사회는 통합 돌봄 대상 어르신 가정을 전문 약사가 직접 찾아가는 복약 지도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가정 내 보관 약물 전수 조사와 약력 관리, 중복 복용과 약물 간 상호작용 확인, 약물 처방 조정,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 폐기, 보호자와 돌봄 인력 대상 약물 교육 등이다.

특히 병원에서 퇴원한 뒤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약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지도를 제공해 건강 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소방서, 임신부 안심 +119구급서비스 운영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임신부가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부 안심+119구급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신부 안심+119구급서비스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모가 사전에 출산 예정일, 진료 병원, 건강 상태, 특이사항 등을 119종합상황실에 등록해 두면, 위급 상황 발생 시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비스에 등록한 임신부가 119에 신고하면 상황요원이 사전 등록 정보를 즉시 확인해 출동 구급대에 전달하고, 구급대원은 이를 토대로 신속한 응급처치와 적절한 의료기관 이송을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119 상황실(☎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보건소 또는 소방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